

롯데백 "지방 경쟁력 강화"... 광주점 위기 돌파하나

중소형점 활성화 TF 신설... 지방 10개 매장 활성화 주력 광주점 점포 리뉴얼·브랜드 강화·마케팅 강화 등 나설 듯

롯데백화점 그룹이 지방에 위치한 중소형 백화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 중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리브랜딩'을 통해 '위기설'을 탈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지난달 대표이사 직속 기관으로 '중소형점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TF는 롯데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100여개의 백화점·아웃렛·쇼핑몰 중 지방 백화점 10개 매장을 활성화하는 사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경쟁력이 약화됐거나, 주변에 경쟁점이 있는 지점이 TF의 활성화 사업 대상이 되는데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비롯한 대구점, 울산점, 포항점, 대전점, 상인점, 동래점 등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도시 개발로 입지가 불리해졌거나 콘텐츠 부족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방 중소형점도 '롯데'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매장만큼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이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불황형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방에 지역 밀착형 매장 조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롯데가 구상하고 있는 중소형점 활성화 대책은 크게 ▲입점 브랜드 차별화 ▲지역 밀착형 특화 매장을 강화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그동안 롯데가 명동 본점과 잠실점 등 수도권 대형점에 집중 입점시켰던 SPA 브랜드들을 지역 거점 점포에 유지하고, 상업 공간 외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체험 공간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우선 대구점의 경우 내년 초 660㎡(200평) 규모의 '나이키 라이프' 매장과 3300㎡(1000평) 규모의 키즈카페 '메타시티'를 들인다.

또 지역밀착형 쇼핑센터(NSC)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화장품, 식료품 등의 상품군을 강화하고, 필요한 물건을 쉽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롯데백화점은 노후화된 인프라 등 쇼핑 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대전점은 대리주차(발렛) 라

운지를 신설하고, 후문 외벽 및 가로등을 도색해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기로 했다. 동래점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고객용 라운지와 화장실, 휴식공간 등 시설도 개선할 예정이다.

광주점의 경우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타 지역 매장과 비슷한, 기존 점포 리뉴얼·브랜드 강화·마케팅 강화 등의 형태로 리브랜딩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롯데백화점의 지방 중소형 백화점 활성화 계획이 발표되면서, 롯데가 지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합쇼핑몰'에 잠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롯데 측은 선을 그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관계자는 "기존 점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TF가 신설된 것은 맞으나, 그 계획에 롯데월드 신설 등의 대규모 공사나 신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는 민선 8기 들어 복합쇼핑몰 경쟁에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롯데는 불황 속 높은 매출을 자랑하고 있는 '롯데마트 월드컵점'마저 임대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철수설'이 흘러나오는 등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이번 리브랜딩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 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윤영 기자 zjang@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중소형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위기를 탈피할 지 주목된다. <롯데백화점 제공>



광주은행, 로봇프로세스자동화 성과

'RPA 시스템' 도입 4년만에 200여개 업무 자동화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사진 오른쪽)은 17일 200여개 업무의 자동화를 구현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 업무 효율 개선과 핵심 업무 집중을 위해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프로세스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지 4년 만의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RPA 시스템'은 PC환경에서 반복·정형화된 단순 업무를 사전에 설정한 로봇 소프트웨어에 적용, 업무를 자동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은행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서를 작성·관리하며 많은 시간을 반복 소비했던 업무를 RPA시스템이 대신하면서 월평균 1731시간을 절감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를 위해 ▲RPA 로봇PC 30대 운영 ▲영업점 업무경감을 위한 업무제안 실시 ▲본부부

서연계 대내외보고서 업무자동화 ▲RPA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했다. 광주은행은 또 앞으로 RPA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딥러닝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단순 반복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은행업무 모든 분야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는 RPA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높이고, 고객 상담 품질을 높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RPA 업무의 지속적 확대와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며 "광주은행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금융권의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지방은행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디지털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내년부터 소주값 10% 내린다...세금 22.0% 할인

참이슬 출고가 1247원→1115원

내년 1월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출고가격이 평균 10% 내리겠다.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은 국산주류와 수입주류의 과세 불평등 때문에 추진됐다.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불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이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1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115원으로 10.6%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 증류주에 적용된다. 소주 출고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도·소매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 소주의 소비자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국산 위스키·브랜드·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해졌다.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됐다.

맥주·막걸리는 기준판매 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들 주류는 양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차별이 없다. 현재 맥주는 1kg당 88만5700원, 막걸리는 1kg당 4만4400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융합산업진흥회 무역촉진단, 베트남 555만달러 수출 계약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는 베트남에 무역촉진단을 파견해 555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광융합산업진흥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로 '베트남 광융합·생체의료소재부품 무역촉진단' 파견했다.

이번 파견은 지난 8월 광주시 북구청과 공동으로 파견한 촉진단에 이은 두번째로, 국내 'K-광융합·생체의료소재부품' 중소기업 시장개척을 위해 추진됐다.

파견된 광융합·생체의료소재부품 11기업은 베트남 해외바이어들과 수출상담회를 열고 총 29건의 수출상담을 통해 광분배기, 광 네트워크 스위치, IOT기반 스마트LED 가로등, 빔확장형 비접촉식 광커넥터, 자동심장충격기 등 제품에 대한 555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또 베트남 현지기업의 제품 생산·설치현장 등을 방문해 국내기업과 베트남 현지기업간 신규프로젝트 개발하는 등 생산방안 마련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김동근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국내 광융합 및 생체의료소재부품 기업의 국내시장 과부하로 해외시장으로 전략적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마케팅지원을

위한 신규사업발굴과 국제협력, 해외판로 개척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하여 지속적인 지원력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과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최갑열 삼일건설 회장 '주택건설의 날' 산업포장

최갑열(사진 오른쪽) 삼일건설(주) 회장이 주택건설의 날을 맞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주최로 열린 '2023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을 비롯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원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최 회장에게 산업포장을 수여했다.

최 회장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7년 충남 아산 방축동에 340여 세대 민간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지난 29년 동안 전국적으로 5000여 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공급했다.

최 회장은 "이번 수상은 삼일건설 임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주택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아 스키복 만나세요
광주신세계 아이스비스킷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유아용 스키복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이탈리아 스키보드웨어 브랜드 라시엘로와 아이스비스킷, 블루독, 베베드피노, 리틀클라우드 등 다양한 키즈 스키웨어 브랜드에서 스키복과 방한화 등을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 ■ 로또복권 (제1098회) | | | | | | |
|-----------------|--------------------|---------------|----|----|-----------|-------------|
| 당첨번호 | | | | | | 2등 보너스숫자 |
| 12 | 16 | 21 | 24 | 41 | 43 | 15 |
| 등위 | | 당첨금(원) | | | 당첨지수 | |
| 1 | 6개 숫자일치 | 1,930,461,895 | | | 13 | |
| 2 |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 61,509,816 | | | 68 | |
| 3 | 5개 숫자일치 | 1,472,771 | | | 2,840 | |
| 4 | 4개 숫자일치 | 50,000 | | | 138,090 | |
| 5 | 3개 숫자일치 | 5,000 | | | 2,311,866 | |